

제 12 장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우리의 주님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단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λόγος(로고스)가 계시니라”. 여기에서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이성, 활동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찾아 오시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14,17).

맨처음의 복음의 선포 “케리그마”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화목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씌우시고 그분 안에서 하

나님의 의를 덧입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이 전한 그 단순한 복음의 핵심이며 요점입니다.

거부되어지고 왜곡되어진 복음

처음부터, 심지어 사도들의 시대부터 복음은 거부되어지고 곡해되었습니다. 이단들의 궤변들이 복음의 설교에 끼어 들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칭하는 지식인 궤변론자들은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배경 설명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왜곡이었고 이런 현상은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발전 과정의 단계에서 가현설(Docetic)이나 케린투스(Cerinthian)의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현설의 영지주의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는 “그노시스”(γνωσις)이며, 따라서 영어의 “gnostic”은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도케오”(δοκέω)는 “... 이라고 보여진다”를 뜻하는데, 여기에서 영어 “docetic”이라는 용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가현설의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만 나타나 보이는 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가 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가현설의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육체와 뼈를 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케린투스의 영지주의는 “케린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것입니다. 케린투스는 에베소에 거하던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의 심각한 적이었습니다. 케린투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침례(세례)시의 예수님에게 임하였다가,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케린투스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는 또 처녀 탄생을 부인하며, 육체

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복음은 이러한 이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로마의 전세계에 걸쳐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중의 위격(duality of Person)이라는 복음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신 인간이십니다.

바울은 목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딤후 6:20).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요이 7).

헬라이어 분사 에르코마이(ἐρχομαι)는 “오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첫번째 강림을 가리킬 수 있으며(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또는 그분의 재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영지주의자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진 육신으로서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첫번째 강림이건 아니면 그분의 재림을 가리키건 간에,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육체적인 현현을 부인합니다.

현대의 영지주의

현대의 영지주의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당시에 직면하였던 그 이단들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세계를 휩쓸고 있

는 이단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이단들은 세계 곳곳의 강단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학문적인 신학의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는 처녀 탄생과 육체의 부활과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가시적이고 인격적인 육신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인간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인간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설교할 때에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오심을 자주 기억해내곤 합니다. 이 장의 한 가운데를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눅 24 : 36~43).

제가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육신의 몸의 부활에 관하여 강해할 때에, 처녀 탄생과 성육신과 그리고 주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한 명의 지성인인 현대 영지주의자가 그 회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나 ! 너무나 유물론적이고 조잡스러운 육체에 관해서 설교를 하다니, 전혀 믿을 수 없을

뿐이야!” 여러분, 현대의 영지주의자들이 설교하는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몸으로 살아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그리스도는 몸으로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교하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가지적으로 다시 오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그리스도는 형이상학적인 사변일 뿐이며, 비물질적인 유령일 뿐이며, 어떤 철학적인 하나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사상이며, 사유이며, 지적인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지 워싱턴에 대한 정신적이고 지적인 사상은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육체적인 존재를 믿을 수 없다. 나는 1732년에 버지니아주의 웨스트 모랜드에서 태어난 그 개인을 믿을 수 없다. 마르다 커스티스(Martha Custis)와 결혼하였고 마운트 비논에서 살았으며 독립전쟁을 이끌었고, 그의 사상은 미국의 헌법의 뼈대를 마련해 주었고, 후에는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 조지 워싱턴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청교도 시대의 식민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정신적인 조지 워싱턴을 믿을 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성을 제거해 버린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사상을 제거해 버린 사상가입니다. 그들은 논리를 제거해 버린 논리 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중성을 증거하는 성경

성경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참 인간이며, 우리와 같은 참 인간 존재가 되셨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이중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시 안에 나타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육체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신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신 천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천사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브니엘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이사야는 그분이 높고 높은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 나타나시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장에서, 성 요한은 예수님을 그의 교회 가운데 있는 일곱 금촛대의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계 1:13~17 상).

과거에도 선재하셨고 영원하셨으며, 장래에도 역시 우리는 그 동일하신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를 목격하게 될 것

입니다. 예수께서 낮은 몸으로, 그러나 귀중하신 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던 잠시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계시이며, 사도들이 설교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장엄하게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9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예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6절).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라는 이 예언은 우리를 그의 인간성으로 인도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아이를 소개하며, 우리를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굶주림의 사막으로 인도합니다. 그는 또 우리를 갈증과 함께 샘물로 인도합니다. 그는 한 밤중에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는 우리를 매일의 노동이 필요한 목수의 일터로 데려갑니다. 그는 영혼의 고향을 체험 하였던 겟세마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인간되심 안에서 악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골고다로 데려가 십니다. 그는 자신이 장사된 고통의 그 무덤으로 우리를 데려가 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의 인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는 그 이상을 뜻합니다. 그분은 태어나시기 전에도 성자 아드님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는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선재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중성은 성경에서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어떤 찬송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딤후 3:16).

사도 바울은 “나타나셨다”(φανερῶ)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선재하셨던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고, 빛나는 영광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히 1:1~3).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과 보혈을 흘리시는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까(히 10:5). 그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동정을 가지시며,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지만 죄는 없으십니다(히 2:17~18). 우리는 궁핍의 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하여 그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히 4:15~16). 항상 우리는 인간의 생명 안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중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

록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φανερῶ*) 바 되었으니(벧전 1:20).

그 위대하신, 영원토록 선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사도 요한에 의하여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여기에서 파네로오 [*φανερῶ*]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영원하신 로고스 [*λόγος*]가 육신이 되셨고, 우리가 그를 보게 되었다는 뜻)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뤼오 [*λύω*]라는 단어이며, “깨뜨려 버린다”는 뜻)하심이니라(요일 3:8 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사단의 무리들과 마귀의 일을 깨뜨려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의 첫번째 서신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요일 1:1~4).

사도들은 화학자가 소금을 알듯이, 지질학자가 바위를 알듯이,

천문학자가 별들을 알듯이 그리스도를 마치 그와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고, 그를 보았고, 그를 만졌으며,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 계신 주님을 그의 처녀 탄생으로부터 증거하였고 복음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시는 설교자로서 그 생애를 증거하였고, 그의 죽음과 장사지내심과 영광스런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명료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과 성육신을 통해서 육신과 뼈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에서도 살과 뼈를 가진 한 명의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장사지내심에서도 살과 뼈를 가진 한 명의 인간이셨습니다. 부활시에도 그분은 살과 뼈를 가지신 한 명의 인간이셨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을 할 때에도 부활하신 몸이 영광을 받으신 육신과 살을 지니신 한 명의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위대하신 중보자일 때에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신과 살을 지니신 한 명의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살을 입으신 그 동일하신 주 예수님께서 세키나($\pi\sigma\kappa\iota\tau\alpha$)의 구름 안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 그분을 가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복음 그 자체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빈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면, 몸을 입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없었을 것이며,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 몸과 육신을 입으신 인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별들을 조사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달을 조사하는 사람처럼 하늘을 쳐다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 봅니다. 교회의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보고 기대하는 것은 어떤 유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허깨비도 아니고, 철학적인 사상도 아니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희망이나, 견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구세주, 이 지상의 왕, 하늘의 천군의 대장,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만을 바라 봅니다. 그분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으며, 우리의 친구이시며,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에서 동료 순례자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위대한 친구가 되시며,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며, 이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희망과 안전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하시는 어떤 의사가 노트 한 권을 나에게 보내었는데, 거기에는 시가 한 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강해하는 바로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한 분 안에서 두 본성이 결합되었으나 그 두 가지는 완전하시네.

완벽한 인간성은 참으로 장엄하고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네.

인간으로서 그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고, 그 겸손한 손님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네.

하나님으로서 그는 그곳의 물을 동하게 하시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네.

인간으로서 그는 산에 오르시어 탄원자가 되셨네.
하나님으로서 그는 기도의 산을 내려오시어 바다 위를 걸으셨네.

인간으로 그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셨네.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곁에서.

하나님으로서 그는 죽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 전능자는 여전히 구원하시네.

인간으로서 그는 곤한 잠으로 인하여 한 배에 누우셨네.
하나님으로서 그는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 폭풍이 잠잠케 되었네.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의 생애는 이중의 본성 안에 계신 한 분이셨네.

진리 안에는 여인의 씨가 있었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오! 그 아이여, 오! 그 아들이여, 오! 육신이 되신 말씀이여, 당신을 향한 찬양은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기묘자라고 부를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라.
영원한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지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강림하시고, 하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병약한

우리의 감정을 제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시며,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도록 하십니다. 바로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복음을 노래하도록 하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 소중한 이름을 귀중히 여기면서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